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3학번 김도한입니다. 저는 현재 포스코에 입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님들께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1년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점이 중요한가?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 많은 친구들이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점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학점이 높은 친구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낮은 친구들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듯, 높은 학점이 합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부생 입장에서 학점은 대학 4년간의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스펙(수상내역, 어학 등등)은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스펙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취업 준비기간 초반에는 수상내역이나 인턴 횟수가 많은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접을 가보면, 경험(수상, 인턴 횟수)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잘하는 친구들은 적었습니다. 아마도 단지 스펙만을 위해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고민했던 경험들은 설득력있고 당당하게 답을 잘했습니다. 반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경험들은 답변을 잘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답변을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후배님들은 스펙을 위해서 인턴활동, 공모전에 참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경험들이 취업과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각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3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자기소개서

저는 “경험 분석”, “남이 보기에 잘 쓴 자소서 작성하기”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 분석”

자기소개서는 본인 경험을 통해 강점과 배운 것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어떤 경험을 써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본인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동안 했던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등 저의 모든 경험들을 나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등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소서 문항별로 적을 수 있는 경험들이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정신-공모전 참여경험 등)

“남이 보기에 잘 쓴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를 읽는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룬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라는 문항을 기업 입장으로 바꿔보면 “회사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가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혼자 자소서를 쓰게 되면 이러한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친구들과 자소서를 많이 돌려보고, 교내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인적성

사실 인적성 검사는 저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전형이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각 영역별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내내 4, 5시간 이상은 인적성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③ 면접

면접은 취업을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면접에 관해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경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면접 시간은 대체로 10분 내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나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면접자들이 면접장에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에 어떤 경험을 말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면접 스터디와 교내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긴장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와 교내 컨설턴트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수없이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웬만한 질문에 관해서는 톡치면 톡하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라” 입니다.

저는 각 기업별로 면접 날짜가 잡히면 최소 100개가 넘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 내가 어필할 경험과 강점, 전공 등 카테고리를 나눠서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과 답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작성하면서 경험 정리 뿐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대처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장에서 이 질문리스트에 벗어났던 질문은 몇 개 없었던 것 같습니다.

4. 하고 싶은 말

취업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탈락을 경험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